



밥·소사! 투구폼 벌써 익혔나?

KIA 용병투수 헨리 소사
삼성전 4이닝 7실점 강판
“투구 습관 때문 쉽게 노출”

6일 오후 광주 무등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소사가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상대 전력분석 본격화... 이젠 습관과의 싸움 벌여야



헨리 소사가 세 번째 등판에서 한국야구의 매운 맛을 봤다. KIA의 외국인 투수 소사가 6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4회까지 7실점을 하면서 조기강판됐다.

지난달 26일 LG를 상대로 치른 한국 데뷔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클리타 스타트를 끊었던 소사는 지난 1일 SK전에서는 8이닝 1실점의 호투를 했다.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완투패의 주인공이 됐지만 첫 경기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투구수 관리에 성공하면서 완투를 해냈다.

두 경기에서 1.93의 방어율로 9탈삼진 4볼넷을 기록했던 소사지만 날짜를 앞당겨 나왔던 6일 등판은 실패였다. 5선발 로테이션상 소사의 등판 예정일은 7일이었지만 본인이 직접 요청해 하루 일찍 등판에 나섰다.

하지만 1회부터 난타를 당했다. 박한이의 중전안타에 이어 최형우에게 볼넷을 내주며 1사 1·2루. 전날 홈런포를 가동시켰던 이승엽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박석민·강봉규·진갑용에게 연달아 안타를 얻어맞으면서 3점을 내줬다.

3·4회는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승엽이 볼넷으로 나간 3회에는 강봉규에게 투런포를 얻어맞았고, 4회에는 김상수·배영섭의 연속 볼넷으로 1사 2·3루에 몰린 뒤 최형우에게 2타점 2루타를 내줬다.

결국 소사는 4회를 끝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4회까지 80개의 공을 던진 소사의 기록은 홈런 포함 7피안타 4볼넷 7실점.

32개를 던진 직구 최고구속은 150km, 싱커(151km·20개), 슬라이더(135km·25개)의 구위로 나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삼성 타선에 못매를 맞으면서 소사의 투구습관이 익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선동열 감독이 우려했던 것은 소사의 '투구 습관'이었다.

선 감독은 소사의 첫 볼런 피칭을 지켜본 뒤 “공을 쉽게 던진다”면서도 “투구 습관이 문제다. 어떤 공을 던지는지가 쉽게 노출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전력 분석팀에서 소사의 피칭 장면을 촬영해 습관 고치기에 나섰다. 3번째 등판에서 삼성 타자들에게 속절없이 당했다.

볼넷도 패인이 됐다. 소사는 이승엽과 배영섭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는 등 4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상대의 전력분석이 본격화되면서 소사는 타자는 물론 투구 습관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한편 7일 무등경기장에서는 KIA 양현종과 삼성 탈보트의 마운드 맞대결이 벌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성구 포수 데뷔 “긴장돼 앞만 보여요”

① 덕아웃 말말말

나지완 “습넘어가게 뛰었죠”

▲이닝은 막았으니까 = 지난 5일 좌완 임기준을 마운드에 올렸던 선동열 감독, 불만 안 던지면 좋겠다는 바람과 달리 임기준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1사2루에서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2010년 신인 임기준은 프로데뷔 3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랐다.

▲조금씩 살아나더라 = 선동열 감독, 타격훈련을 하던 삼성 최형우가 인사를 하자, 지난해 홈런왕 최형우는 올 시즌 계속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는 등 고전하고 있다. 5일 KIA와의 경기에서는 말타히트를 기록했다.

▲앞만 보였어요 = 지난 5일 1군 데뷔전을 치른 포수 한성구, 첫 경기라 긴장돼서 시야가 좁았다면서, 8회 초 수비에 이승엽의 포수 파울플라

이를 놓치는 실수를 했던 한성구는 9회 두 번째 타석에서 1타점 2루타로 데뷔 첫 안타와 타점을 기록했다.

▲습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 지난 5일 경기에서 도루를 추가한 나지완, 아슬아슬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면서,

▲못 하니까 밀린거죠 = 등판 로테이션이 밀린 김진우, 몸이 안 좋다는 질문에 농담으로, 6일 선발로 예상됐던 김진우는 소사의 등판이 앞당겨지고, 좌완 양현종이 좌타자가 많은 삼성전에 투입되면서 롯데와의 원정 경기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창피해서 눈 가려야겠어요 = 신인 윤완주 고글을 쓰면서, 5일 발목이 좋지 않은 이용규를 대신해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던 내야수 출신의 윤완주는 두 차례 좋은 수비를 보였지만 9회 최형우의 타구를 잡지 못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3700루 훔쳤다

KIA 김선빈 삼성전서 팀 도루 신기록

‘무등메시’ 김선빈이 팀 3700도루의 주인공이 됐다.

KIA 김선빈이 삼성과의 홈경기인 6일,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좌전안타를 터트린 뒤 이범호의 타석때 2루 베이스를 훔치며 시즌 13번째 도루를 기록했다.

김선빈의 도루로 KIA는 프로야구 사상 첫 3700도루 고지를 밟은 팀이 됐다.

KIA는 김일권-이순철-이종범으로 ‘대도’ 계보를 이어오면서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3600도루를 채웠다.

도루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톱타자 이용규(18개)는 발뒤꿈치 통증으로 이를 연속 결정하면서 3700도루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이용규는 통산 17번째 200도루에 2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일 삼성전에서 3회말 2루베이스를 훔쳐 팀 3700도루의 주인공이 된 KIA 김선빈.

벌써... 프로야구 300만 관중 돌파

역대 최단경기 기록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경기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6일 KIA와 삼성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4개 구장에 6만4305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 누적 관중이 305만7899명이 됐다. 190경기 만의 기록으로 지난해 작성된 역대 최소 경기(227경기)보다 37경기 더 앞당겨졌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유례없는 치열한 순위싸움 속에 4월29일 100만 관중, 5월18일 200만 관중을 넘어섰으며 올 시즌 역대 최소경기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관객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팀은 넥센으로 홈 23경기에 23만4374명이 입장해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야석을 증축한 한화가 4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5·6일 무등경기장에 1만2500명이 찾으면서 KIA의 매진 행진도 계속됐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도 20경기 만에 9번째 매진이 달성되면서 2009년 작성된 역대 최다 매진 기록인 21경기 경신도 가능한 전망이다.

20경기에서 KIA의 누적관중은 20만2799명으로 지난해 16만7862명보다 21% 늘어났다. 평균관중도 8980명에서 1만139명으로 증가했다.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 내용 | 지정홀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존 성공시 혜택
 | 대상 | 주중 내장팀에 한함

Hole in one		● 혜택 팀 전원 그린피 면제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게스타 12번홀	● 혜택	
팰리스 20번홀	● 혜택	
Dynasty Zon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팰리스 27번홀	● 혜택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